



제71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2일)

## 한국의 사리장엄구

김민송, 302호 금속공예실 18:00~18:30

금속공예실을 둘러보면 사리장엄구 몇 작품이 확인됩니다. 사리장엄은 부처의 유골을 의미하는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갖춰 꾸미는 모든 조형물과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리를 직접 안치하는 사리기부터 사리기가 봉안되는 탑이나 전각, 각종 공양품과 의례 행위 등이 사리장엄에 포함됩니다. 사리장엄구는 이 중에서도 사리기와 공양품을 합쳐 이르는 말로, 삼국시대에 불교의 유입과 함께 한반도로 전래되었습니다.

사리장엄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삼국시대의 사리장엄구로는 백제 3건, 신라 2건이 확인됩니다. 삼국시대의 사리장엄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왕실에서 발원·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불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유입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는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다양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었는데, 앞 시기에 비해 형태도 다양해지며 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탑 발견품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리장엄구가 제작·봉안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 시기와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바로 발원 계층이 왕실뿐만 아닌 귀족과 일반인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로 인식될 만큼 불교문화가 성행하면서, 사리장엄구 역시 종류가 확대됩니다.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사리를 장식하였으며, 사리장엄구로 청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 간섭기 이후로는 원 황실에서 신봉한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명 라마탑형 사리기가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문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불교 공예품의 제작도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실 비빈에 의한 불사 후원이 지속되었으며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가 제작되었으며, 석탑뿐만 아닌 승탑이나 불상의 복장물로 사리장엄구가 확인되곤 합니다. 백자나 대리석을 사리기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후대로 가면 유기제품이 증가합니다.

한국의 사리장엄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점은 바로 여러 겹의 용기를 겹쳐서 봉안하고 있다는 점, 사리를 직접 담는 가장 안쪽에 놓이는 용기를 당시 가장 귀한 재질로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사리장엄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신라 이사금 시기에서 마립간 시기로의 사회변동

옥재원, 108호 신라실 18:00~18:30

선사·고대관 신라실의 두 번째 공간, 이야기 ‘나라의 힘은 쇠에서 나왔다’로 시작되는 방에 들면, 경주지역에서 발견된 쇠도끼·쇠낫·쇠따비 등의 철제농기들과 목가리개·판갑옷·미늘쇠·쇠창·고리자루칼 등의 철제무기들이 신라新羅 3~4세기대의 이야기를 따라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덩이쇠와 거푸집은 이를 재료와 틀로 삼아 다양한 철기를 만들고 쓴 경주 사로국斯盧國 사람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도구들은 주로 덧널무덤[木槨墓]에서 나왔는데, 발견 장소를 유심히 살펴다보면 그 지점이 덕천리·구정동·월성로·황성동 등 여러 군데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관계 깊습니다.



그림 1. 경주 구정동 목곽묘 출토, 목가리개·판갑옷

사로국은 경주 일원에서 존립하고 있던 몇몇 세력들이 연합하며 세워졌습니다. 한동안 이들 사이의 협력과 경쟁을 거치며 성장을 이어갔고, 바깥으로 나라의 힘을 서서히 펼쳐나갔습니다. 그 같은 성장의 동력이 된 철제 전시품들의 여러 출처는 나라의 지배자 이사금尼師今과 여러 세력이 함께 이끈 당시의 일정한 사회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공간, ‘마립간, 황금의 나라를 열다’ 이야기로 이어지는 방에서는 특별하고 화려한 금공위세품들이 앞선 역사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실상을 내보입니다. 이 방의 전시품들은 ‘대릉원’으로 잘 알려진 특정한 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묘역 입지와 무덤 형식(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墓])의 양상, 그리고 위세품의 소유가 매우 배타적이어서, 이로부터 권위와 권력이 높은 단독 세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김씨金氏집단입니다.

이들은 이사금보다 강한 지배력을 발휘한 마립간麻立干을 독점적으로 배출하며 혈연 계승원리를 구축하고 자기중심의 차등적 지배질서를 정립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금공위세품을 차별적으로 사여하면서 이 방식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영남지방 내외의 광역에 걸친 각지의 주요 무덤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금공위세품들은 권력을 한데 모아간 마립간과 신라의 위상을 잘 드러냅니다.

제71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2일)

## 유리건판과 궁궐사진

김영민, 120호 대한제국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에는 38,000여 장의 유리건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궁궐 사진은 약 800여 장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제작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관해오던 것을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계받아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여러 궁궐을 조영하였습니다. 조선이 수도 한양에 지은 대표적인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입니다. 왕조시대에 궁궐은 단순히 왕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자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화 한 일제는 그 궁궐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궁궐 정면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는 것을 비롯하여, 무수한 전각들을 훼손하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의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조선 궁궐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원형이 다시 손상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리건판 사진들을 통해서 궁궐의 원형은 어떠했으며, 일제가 파괴, 변형시킨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건판 사진에 담긴 기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유리건판은 일제가 조선을 철저한 식민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자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이것을 다시 바라 볼 때,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남은 주제는 물론, 그 배경에 담긴 엄청난 기록들은 근대 한국문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제와 광복 이후 사회적, 문화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놓쳐버린 구체적인 역사의 단편들을 유리건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1. 경복궁 근정전 일대



그림2. 경희궁 승정전 정면



제71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2일)

## 우리 그림 속 옛 이야기 - 독락원도

강한라, 202-5호 서화Ⅱ실 19:00~19:30

봄빛이 완연한 풍경 속에 저마다의 일로 분주해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낚시에 한껏 몰두한 동자며, 대나무를 옮기는 일꾼들, 다과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하는 어린 시종, 잠시 땀을 식히는 듯 옷을 풀어헤치고 쟁기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일꾼까지, 바빠 움직이는 이들 속에 오직 한 사람만이 평온해보입니다. 바로 이 정원의 주인, 사마광司馬光(1019~1086)입니다.

사마광은 중국 북송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자치통감』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황제 신종神宗(재위 1068~1085)이 신법개혁을 단행하자,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낙양으로 내려와 정원을 가꾸고 은거하였습니다. 그 은거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 바로 독락원獨樂園, 홀로 즐거움이 있는 정원입니다.



독락원, 조선 17세기 중후반, 탁수 1863

이 작품은 독락원에서 평온한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사마광의 모습을 화사한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그림 속 '사마광의 은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초록빛으로 곱게 그려낸 것을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였음에는 분명해보입니다. 사마광은 이 정원에 은거하며 문인이라면 응당 읽어야 할 역사서이자, 왕실의 제왕학 필수 교재가 된 『자치통감』을 써 냈습니다. 선비라면 응당 동경할 만한 업적이지만, 이 그림 속 사마광은 발치에 자리한 붓과 먹, 종이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몸을 편히 기대 채 이 정원에서의 삶을 관조하는 듯 깊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독락'의 공간을 누리는 사마광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이 관직 생활에 지친 어떤 이에게는 휴식을 위한 나만의 정원을 꿈꾸게 하는 염원으로, 정계에서 밀려나 은거를 선택해야만 했던 어떤 선비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광은 정원을 조성한 후, 「독락원기獨樂園記」를 지어 독락원에 담은 삶의 방식과 그 풍광을 노래했습니다. 글 속 독락원의 모습을 오롯이 펼쳐낸 사마광의 정원 그림에 잠시 멈춰 서서, 옛 선비들이 흠모했던 은거의 아취, 온전히 홀로 즐기는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